

신세계, 롯데百 센텀점 품는다… 쇼핑·문화 거점으로 재탄생

센텀시티점 양수도 계약 체결

신세계, 백화점·센텀몰 연계 개발
호텔·오피스·레지던스 조성 추진

롯데, 부진 점포 매각 수익성 개선
부산본점·동부산점에 투자 집중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20년 가까이 경쟁해 온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사업 구도가 바뀐다. 신세계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인수해 일대를 대규모 복합상권으로 개발하는 반면, 롯데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핵심 점포에 투자를 집중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롯데쇼핑과 부산 센텀시티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 센텀시티점은 거래 종결까지 정상 영업하며 구체적인 영업 종료 시점은 심사 이후 확정된다. 이번 거래는 같은 상권에서 경쟁해 온 두 회사의 상반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 전경.

/신세계

2007년 문을 연 롯데 센텀시티점은 2009년 인접한 곳에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들어서면서 경쟁을 벌여왔다.

신세계는 기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대비 3배 큰 규모와 명품·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비수도권 백화점 최초로 연매출 1

조원을 넘어섰으며 2023년부터 3년 연속 2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롯데 센텀시티점은 신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실적이 부진했다. 한때 연매출 3000억원을 넘었지만 2023년에는 1300억 원에 그쳤다.

롯데는 점포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

토했으나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신세계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센텀시티 일대를 쇼핑·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결합된 '신세계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2016년 개장한 센텀시티몰에 인수 공간을 연결해 대규모 복합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점포는 쇼핑·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한다. 센텀시티 내 C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해당 부지에는 럭셔리 호텔과 프라이م 오피스, 프리미엄 레지던스 등을 갖춘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신규 시설을 연계해 쇼핑뿐 아니라 업무와 숙박, 관광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양수도는 양사가 경쟁을 넘어 각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신세계 센텀시티를 쇼핑과 문화, 관광, 도심형 공간이 유기적

으로 융합된 신세계 타운으로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핵심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센텀시티점 매각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부산본점과 롯데몰 동부산점 등 핵심 점포에 집중할 전망이다. 부산본점은 이달 지식재산권(IP) 전문관 개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전관 리뉴얼에 나서고, 동부산점은 입점 브랜드와 상품 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부실점포를 정리하고 대신 알짜 점포를 키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올해 인천점과 노원점의 전관 리뉴얼을 완료했으며 잠실점과 본점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인천 송도 등에서 신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 센텀시티점 직원들은 부산 지역 내 다른 점포로의 전환 배치가 우선 검토된다. 입점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영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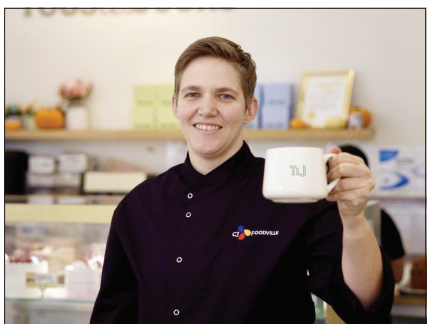
metro

뚜레쥬르, 아시아 입맛 잡을 'K-음료' 띄운다

美 음료 전문가, 아시아 3국 순회
현지 식재료·K-디저트 접목 추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음료 개발 및 글로벌 운영 역량을 아시아 주요 사업장에 전파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로컬 트렌드를 반영한 K음료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뚜레쥬르 미국 법인의 음료 스페셜리스트 알렉산드라 헤이거(Alexandra Hager)가 30일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며 현지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주목받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음료 개발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커피나 차(Tea)에 K베이커리 또는 K디저트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콘셉트의 음료



뚜레쥬르 미국 법인의 음료 스페셜리스트 알렉산드라 헤이거(Alexandra Hager)가 30일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며 현지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조사한다.

/CJ푸드빌

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알렉산드라 헤이거가 지원해 참여했다. 헤이거는 2018년 뚜레쥬르에 합류한 이래 미국 시장에서 한국적 특색을 담은 다양한 시그니처 음료를 선보여왔다. 2022년 4월 스페셜티커피

협회(SCA)가 주최하는 미국 커피 챔피언십(U.S. Coffee Championships)에서 커피 칵테일 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뚜레쥬르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스타벅스와 블루보틀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했다.

대표적인 메뉴는 뚜레쥬르의 인기 케이크를 음료로 재해석한 '타리미수 라떼'부터 한국적인 식재료를 활용한 '고추장 카라멜 라떼'까지 다양하다. 특히 '고추장 카라멜 라떼'는 글로벌 브랜드 오틀리(Oatly)와 협업해 개발한 메뉴로, 고추장의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풍미를 라떼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는 이번 글로벌 투어 프로젝트를 통해 상품 개발 역량과 운영 노하우를 해외 사업장에 공유하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동서식품, 마시멜로 2배 늘린 '오레오오즈'

별·하트 등 파스텔색 마시멜로 추가

동서식품이 오레오오즈 시리얼에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마시멜로를 더한 신제품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레오오즈'는 1997년 미국에서 탄생한 초코 시리얼 브랜드로, 코코아 풍미의 오즈링과 달콤한 마시멜로의 조화가 특징이다. 마스코트는 '오즈맨'이다.

이번 신제품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는 기존 오레오오즈 대비 마시멜로 함량을 2배 늘렸다. 특히 별·하트 등 다양한 모양의 파스텔 색상 마시멜로를 더했다. 우유와 함께 시리얼로 즐기는 것은 물론 간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요거트 등에 곁들이면 오



신제품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 /동서식품

즈링의 바삭한 식감과 마시멜로를 활용한 토포링으로도 즐길 수 있다.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는 450g 대용량 제품과 25g 컵 타입 두 가지로 출시된다.

동서식품 유행 마케팅 매니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시리얼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국순당 막걸리 품미 담은 캔디 말랑쫄득 '막쥬' 개발

국순당이 크라운제과와 협력해 '국순당 쌀막걸리'를 활용한 발효쌀 추잉캔디 '국순당 막쥬'를 개발하고 막걸리 시장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순당 막쥬'는 국순당의 지식재산권(IP)과 '국순당 쌀막걸리'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국순당의 발효 기술과 크라운제과의 캔디 제조 노하우를 결합해 막걸리 고유의 부드러운 곡물 풍미와 말랑하고 쫄득한 식감의 추잉캔디를 구현했다.

100% 국내산 쌀과 국순당이 직접 키운 누룩 및 효모로 세 번의 발효를 거쳐 빻은 '국순당 쌀막걸리'를 원재료로 사용해 쌀의 부드러운 풍미를 담았다.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은 휘발돼 잔존 알코올은 없다.

/김서현 기자

현대百, 장호진·박홍진 부회장 승진

7년 만에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 부활
임원 50명 인사… 경영 안정·책임 강화

현대백화점그룹이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과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7년 만에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를 부활시켰다.

핵심 계열사의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면서 고위 임원들의 직급을 높여 경영 안정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9일 현대백화점그룹이 부회장 2명, 사장 3명, 부사장 3명을 포함해 승진 27명, 전보 23명 등 총 50명에 대한 2027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발령 일자리는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의 부활이다.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전문경영인이 부회장에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와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는 부회장 승진 이후에도 기존 대표직을 유지한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장호진 신임 부회장은 1987년 현대그룹에 입사해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과 기획조정본부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거쳤다. 2023년부터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아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박홍진 신임 부회장은 1995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해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시장 승진자는 3명이다.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운영식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과 이현상 현대그린푸드 부사장도 사장단에 합류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 '쥬틴큐' 한정판 완판에 2탄 선포

후속 패키지 물량 3만 세트로 확대

롯데칠성음료가 단종 11년 만에 재출시한 '쥬틴큐' 한정판 패키지가 완판된 가운데, 새로운 콘셉트의 후속 패키지를 한정수량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0월 중순 쥬틴큐 재출시를 기념해 '쥬틴큐 보물상자' 기획 패키지 1만2000세트를 한정수량 출시했다. 패키지는 제품 2병, 스테인리스 전용잔, 기념 주화로 구성됐으며, 쥬틴큐 출시 연도를 기념한 1980세트에는 1.5돈 상당의

순은주화가 동봉됐다. 편의점, 대형마트 및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한 1만2000세트는 공장 출고 기준 하루 만에 전량 소진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쥬틴큐 패키지 콘셉트는 '고장 난 쥬틴큐 타임머신'이다. 과거 '쥬틴큐를 마시면 다다음 날 깨어나 숙취가 없다'는 온라인상의 유머를 활용해 속편을 주제로 기획했다. 이번 패키지는 제품 2병과 수면안데, '숙면 중' 문고리 카드로 구성됐다. 새로운 패키지는 기존 '쥬틴큐 보물상자' 패키지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3만 세트를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